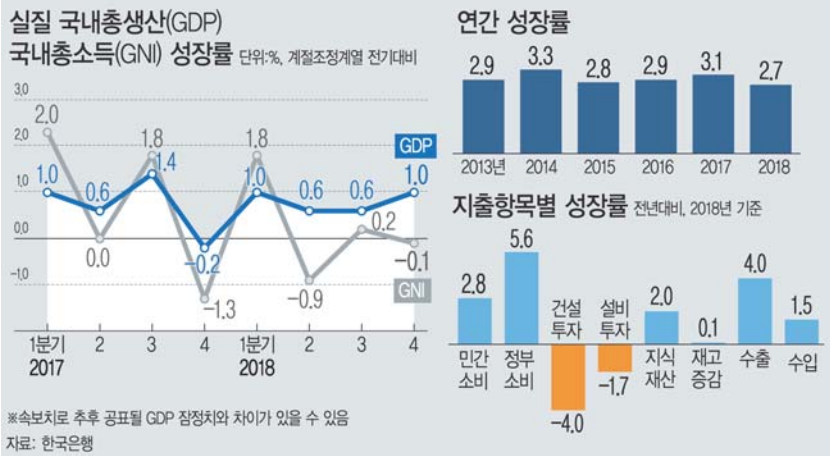
작년 한국 경제 성적표 6년來 최저

GDP 성장률 4분기 1.0% 반등에도 2.7% 그쳐
올해 2.7%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많아
경제 버팀목 '수출' 증가세 꺾이면서 우려 고조



한국 경제가 연초부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쳐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은데 이어 올해는 경기가 더 하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고용 악화, 투자 위축 등 내수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반도체 경기마저 둔화돼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일찌감치 3%대 성장은 물건너간지 오래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7%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가 성장 활력을 잃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2.7%로 지난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정부 재정효과에 힘입어 4분기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서며 막판 반등까지 성공했으나 연중 극심했던 투자 부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한은은 아직까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2.6~2.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투자 위축 우려가 있지만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최근 경제지표의 흐름은 다르다. 무엇보다 수출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다. 전날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5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6% 줄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에서 수출도 2.2% 하락, 지난 2017년 4분기(-5.3%) 이후 1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현지시각)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5%까지 낮춘 상황이다.

내수도 민간소비는 괜찮다고 하지만 투자는 역성장한지 오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는 4.0% 감소해 지난 1998년(-13.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설비투자도 1.7% 떨어져 지난 2009년(-7.7%)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좋지 않아 투자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악화된 고용사정은 소비까지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지난해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9만7000명 증가에 그쳐 지난 2009년(-8만7000명)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은 이미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전반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심상찮은 조짐에 전망치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로 전망했고 현대경제연구원(2.6%), 한국경제연구원(2.5%), LG경제연구원(2.6%) 등도 2.5~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망치를 내놨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6%를 제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가 불안해지며 수출에도 불안 요소가 생겼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과 민간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고용 환경까지 악화돼 전체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안기능 강화한 한국후지제록스 신제품 한국후지제록스가 22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새로운 컬러 디지털 복합기 '아페오스포트-VII (ApeosPort-VII)', '도큐센터-VII(DocuCentre-VII) 시리즈' 14종을 공개했다. 한국후지제록스가 이번에 발표한 신제품은 최근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조작 성능을 개선해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누구나 손쉬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은행 대출시 금리 산정내역 공개… '금리인하요구권'도 보장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 및 사유 반드시 통보해야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내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실질도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 온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운영 개선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금감원 점검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고객의 소득을 누락하는 등 조작과 다름없는 편법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받은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 등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기준금리의 경우 자금 조달비용이 반영된 시장금리이며 가산금리는 각 은행의 대출 관련 업무원가와 각종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 은행 마진을 결정하는 목표수익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급여이체나 카드이용 실적, 은행별 영업상황을 감안한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는 '가감조정금리'를 더하거나 빼면 개인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실제 적용되는 금리가 산출된다.

개선안은 대출시 기준금리과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가 얼마씩 적용됐는지를 상세하게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올해 1분기 중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가감조정금리의 경우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따로 구분해 항목별로 제공한다. 예컨대 신용카드 이용실적이나 자동이체 실적 등 우대금리 항목을 수치와 함께 나열하고 대출자가 우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본부·영업점장 전결금리가 적용됐는지를 명시토록 한 것이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소득과 담보, 신용등급 등의 기초정보도 담긴다. 대출시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대출심사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산정내역서는 대출계약 체결시 뿐만 아니라 갱신이나 연장,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에도 제공된다.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시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거절해도 소비자에게 그 사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높아진 신용등급 만큼 금리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았다.

개선안은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했다. 신용도 상승에 따라 가산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이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상승시켜 가산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통보시에는 구체적 사유도 함께 알리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직위가 상승했지만 연봉 상승이 없으므로 신용도가 상승하지 않아 금리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식으로 통보토록 했다.

이달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달 말부터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오는 31일부터는 우대 적용 구간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에 약 2%(체크카드 1.6%)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각각 1.4%(체크카드 1.1%), 1.6%(체크카드 1.3%)씩으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총 262만6000개에 달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이는 올해 1월 기준(특수가맹점 포함)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에 해당한다. 카드이용액 기준으로는 약 34%에 해당한다.

또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에 따라 연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간 약 5300억원 정도의 카드수수료 경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구간의 가맹점이 약 33만9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가맹점당 연 평균 약 160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